

## 이경해 열사의 삶을 뒤따르는 한농연 조직으로 거듭납시다

8월 11일, 장대비가 쏟아지던 전북 무주리조트의 개회식장에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신 회원 동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회 실무를 담당하여 물심양면 애쓰신 전북도연합회 김선태 회장과 무주군연합회 이광환 회장님 외 임직원 및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및 무주군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분들의 열정어린 도움이 없었다면 이번 대회를 성공리에 끝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1989년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제1회 농어민후계자수련대회가 열렸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제11회 전국대회는 20년만에 그 발상지로 돌아온 셈입니다. 더욱이 무주는 1987년 한농연의 전신인 전후협(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을 만들고, 제1회 전국대회의 성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이경해 열사의 고향인 전북 장수군과도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 뜻 깊은 대회가 아니었나 합니다.

대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과 시장 논리로 바라봤던 개념 자체를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농정 실패의 원인이 정부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정부 수립 60년 아니 반만년 민족사를 통틀어 고통에 신음해 온 농민들의 한을 풀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5년 전 9월 11일, 이경해 열사의 희생은 350만 한맺힌 이 나라 농민들의 피눈물 어린 외침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살려달라는 처절한 구난신호(911, 긴급 구조 전화번호)였습니다. 국제 곡물메이저의 손아귀에 돌아나는 WTO 체제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폭로한 의거였습니다. 살아남은 우리 농민들은 서울에서, 홍콩에서, 그리고 한-미 FTA가 열리던 미국에서 힘차게 투쟁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350만 농민 모두가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과 식품안전권, 나아가 농민생존권 수호의 최전선에 나서는 투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9월 7일, 이경해 열사 서거 5주년을 기념하는 마라톤대회가 전북 장수군에서 열립니다. 흔히 마라톤을 고독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턱까지 차오르는 거친 숨, 뜨거워진 몸, 천근 만근 무거워진 다리만큼이나 힘든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이를 이겨내 정해진 코스를 완주한 뒤 느끼는 기쁨과 환호를 우리는 잘 압니다. 생산 현장에서, 아스팔트 농사의 중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느낄 수 있었던 자신감과 당당함에 비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식물상태로 전락한 국회, 총체적인 농정 난맥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습니다. 이제 농민의 힘으로 바뀌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반농업 세력과의 투쟁은 물론, 세계 최고의 일류 농업인으로, 세계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체로 우리 한농연 회원 모두가 거듭나야 합니다. 뛰어난 농민이었던 이경해 열사의 삶을 생각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농연으로 만들어갑시다.

